

치위생(학)과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생명 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융합연구

박영남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Dental Hygiene and Health Science related Majoring Students

Young-Nam Park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와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 생명윤리의식을 파악하여 생명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하였다. 생명권과 인공수정 인식도의 관한 상관관계는 성별($r=0.241$), 종교($r=-0.176$), 학과($r=-0.160$)에서 유의하였고,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년($r=0.129$), 종교($r=-0.098$), 생명윤리 교육여부($r=0.235$)에서 유의하였다. 안락사의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종교($r=0.139$), 생명윤리교육 여부($r=-0.157$)에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아의 생명권, 인공수정, 장기기증, 장기이식, 안락사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dental hygiene and health science students in order to grasp the bioethics consciousness from June to July 2018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ioethics curriculum. Correlation between fetal right of life and artificial insemination awareness was significant in gender($r=0.241$), religion($r=-0.176$), and department($r=-0.160$).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organ dona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was significant in grade($r=0.129$), religion($r=-0.098$), bio ethics education($r=0.235$). Correlation of euthanasia perception was significant in religion ($r=0.139$), bioethics education($r=-0.157$). As a result, To establish an ethical view that is desirable for health college students, Necessary to develop a curriculum and to systematically run education program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biomedical ethics.

Key Words : Fetal right of life, Artificial insemination, Organ donation, Organ transplantation, Euthanasia

1.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공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태아의 검진 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통한 인간의 생명연장 및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새 생명 복제까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추세의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위 역시 광범위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전은 질병의 치료와 진단에 있어 이상적인 신기술을 적용하여 불가능하였던 질병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의식 확립에 위기를 가져왔다[2]. 그 결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판단에 논의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port of academic research at Gimcheon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Young-Nam Park(ivy9797@empas.com)

Received September 11,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October 7,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와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명의료 윤리라는 말은 생명과학이 의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생명과학 시대에 인간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윤리학이라는 의미로 대두되기 시작했다[3]. 또한 생명의료 윤리의 분야는 윤리적 가치관이나 갈등문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생명의료 윤리의 쟁점들에 대한 태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관련 직종은 생명윤리에 관한 윤리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덕적 가치관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다양하게 부딪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료 및 간호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삶과 죽음에 관한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필수적이다[5].

구강보건의로 전문가 집단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1981년에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기존의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6]. 대학시절에 확립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은 임상실습 현장이나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7]. 생명윤리에 대한 국내연구에서 이등[8]은 간호학생의 간호 관련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에 대해, 안 등[9]은 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생명윤리 의식에 대해 보고하였고 권[10]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체조작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 간호사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 등[11], 김과 최[12], 안[13]등이 생명윤리의식과 그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수가 매우 적고 시간이 오래되어 최근 학생들의 생명윤리 의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와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와 장기이식, 안락사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고 생명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부지역 4년제 3개 학교의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였고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F(효과크기) 0.2, α

=0.05, 검정력($1-\beta$)=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탈락률 10% 등을 고려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자수는 총 320부였으며 그중에 30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2 설문조사

설문지 작성은 이규숙[14]과 이영숙[15]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수정(8문항), 안락사(8문항), 장기기증과 장기이식(8문항), 안락사와 장기기증의 상관관계(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측정기준은 5점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부정문항은 역산처리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별 신뢰도는 태아의 생명권과 장기이식은 Cronbach's α =0.725, 안락사는 Cronbach's α =0.831,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은 Cronbach's α =0.671, 안락사와 장기기증의 상관관계는 Cronbach's α =0.702 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수정에 관한 인식, 안락사에 관한 인식, 안락사와 장기기증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나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검정하였다. 유의수준은 α < 0.05, α < 0.01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생명권과 인공수정, 장기기증 및 안락사의 인식에 관한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77.0%로 많았고 학년은 2학년이 52.3%로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0.6%로 많았고 학과는 치위생학과가 50.3%로 가장 많았다. 생명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66.0%로 많았으며 장기이식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51.0%로 많았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가 71.3%로 많았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Gender	Male	69	23.0
	Female	231	77.0
Grade	1	76	25.3
	2	157	52.3
	3	42	14.0
	4	25	8.3
Religion	yes	182	60.6
	no	118	39.4
Department	Dental hygiene	151	50.3
	Radiology	40	13.3
	Physical Therapy	34	11.3
	Clinical Laboratory	35	11.7
	Dental technology	40	13.3
Receive a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102	34.0
	no	198	66.0
organ donation	positive	153	51.0
	negative	34	11.3
	indifference	113	37.7
yes or no of euthanasia	yes	86	28.7
	no	214	71.3
	Total	300	100.0

3.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수정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에 특성에 따른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수정에 관한 인식도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자가 3.24점, 학년에서는 4학년이 3.33점, 종교는 있는 경우가 3.37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과에서는 임상병리학과가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Awareness of a fetal right of life and 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Perception Level (mean±SD)	p-value
Gender	Male	2.99±0.40	0.001**
	Female	3.24±0.44	

3.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는 Table 3과 같다. 종교에서는 있는 경우가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경우가 3.2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Awareness of organ dona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Perception Level (mean±SD)	p-value
Gender	Male	3.09±0.31	0.53
	Female	3.06±0.30	
Grade	1	3.04±0.36	0.16
	2	3.10±0.26	
	3	2.99±0.35	
	4	3.09±0.23	
Religion	yes	3.31±0.48	0.01*
	no	2.98±0.38	
Department	Dental hygiene	3.04±0.33	0.29
	radiology	3.13±0.28	
	Physical Therapy	3.03±0.25	
	Clinical Laboratory	3.11±0.28	
	Dental technology	3.13±0.28	
Receive a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3.21±0.63	0.02*
	no	3.05±0.38	

* : $p<0.05$, **: $p<0.01$

3.4 연구대상자의 특성 따른 안락사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락사에 관한 인식도는 Table 4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3.19점으로 높았고 학년은 2학년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3.0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과에서는 방사선학과와 치기공학과가 3.2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3.4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4. Awareness of euthanasia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Perception Level (mean±SD)	p-value
Gender	Male	3.19±0.39	0.02*
	Female	3.07±0.41	
Grade	1	2.98±0.50 ^a	0.001**
	2	3.17±0.37 ^b	
	3	3.04±0.31 ^c	
	4	3.06±0.37 ^c	
Religion	yes	2.68±0.43	0.001**
	no	3.02±0.64	
Department	Dental hygiene	3.04±0.42 ^a	0.001**
	radiology	3.25±0.35 ^b	
	Physical Therapy	2.97±0.42 ^c	
	Clinical Laboratory	3.12±0.35 ^a	
	Dental technology	3.25±0.35 ^b	
Receive a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3.45±0.27	0.001**
	no	3.02±0.42	

* :p<0.05, ** : p<0.01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3.5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락사와 장기기증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락사와 장기기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도는 Table 5와 같다. 학년은 3학년이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3.0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3.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6 연구대상자에 따른 안락사와 장기기증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생명권과 인공수정, 장기기증 및 안락사의 인식에 관한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생명권과 인공수정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r=0.241), 종교(r=-0.176), 학과(r=-0.16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년(r=0.129), 종교(r=-0.098), 생명윤리 교육 여부(r=0.2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안락사의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종교(r=0.139), 생명윤리교육 여부(r=-0.15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5. Awareness of correlation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Perception Level (mean±SD)	p-value
Gender	Male	3.25±0.59	0.54
	Female	3.29±0.52	
Grade	1	3.11±0.66 ^a	0.01*
	2	3.34±0.48 ^b	
	3	3.35±0.46 ^b	
	4	3.32±0.49 ^b	
Religion	yes	2.68±0.43	0.001**
	no	3.02±0.64	
Department	Dental hygiene	3.24±0.59	0.52
	radiology	3.28±0.40	
	Physical Therapy	3.35±0.64	
	Clinical Laboratory	3.40±0.45	
	Dental technology	3.28±0.40	
Receive a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3.37±0.25	0.001**
	no	3.08±0.54	

* :p<0.05, ** : p<0.01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Table 6. The correlation of a fetal right of life and artificial insemination, organ dona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euthanasia among the subjects

	V1	V2	V3	V4	V5	V6	V7
V1	1						
V2	0.064	1					
V3	-0.296**	0.051	1				
V4	-0.471**	-0.312**	0.214**	1			
V5	0.009	0.177**	0.124*	-0.037	1		
V6	0.241**	0.069	-0.176**	-0.160**	-0.040	1	
V7	0.017	0.129*	-0.098*	0.059	-0.329**	0.235**	1
V8	-0.061	-0.047	0.139**	0.094	-0.157**	0.024	0.254**

V1:gender, V2:grade, V3:religion, V4:department, V5:receive a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V6:awareness of a fetal right of life and artificial insemination, V7:awareness of organ dona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V8:awareness of euthanasia
 (* : p<0.05, ** :p<0.01)

4. 고찰 및 제언

인류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과학과 의료기술이 확장되는 시기마다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인공임신중절, 인락사, 장기기증, 유전자 치료 등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문제들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생명과 죽음, 생식, 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전통적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판단이나 가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16].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와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와 장기기증, 인락사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고 생명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특성에 따른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수정에 관한 인식도에서 여자가 3.24점, 학년에서는 4학년이 3.33점, 종교는 있는 경우가 3.37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학과에서는 임상병리학과가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최근 낙태법에 대한 많은 논란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측면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또한 난임, 불임부부들의 대리모 출산이나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업계에 종사하게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기증과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경우가 3.2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인간생명공학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학으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환과 악성종양 치료, 장기기증 거부반응 방지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질병이 있는 인간을 살린다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3,17].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에서 형성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18] 학생들은 인간생명공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죽음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기증이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락사에 관한 인식도는 남자

가 3.19점으로 높았고 학년은 2학년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3.0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학과에서는 방사선학과와 치기공학과가 3.2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3.4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인락사에 대한 인식에는 종교생활, 자이존증감,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 등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한국은 인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19]. 이런 인락사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 죽음을 지연시키는 능력, 현대 의학의 한계에 대한 지각, 인간 책임 한계성의 불명료함, 간호해야 할 의무의 확실함 등이다[20]. Lowe 등은 '인락사' 문제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같은 죽을 권리는 아니라고 하였다[2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락사와 장기기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도는 3학년이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3.0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3.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생명권과 인공수정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r = 0.241$), 종교($r = -0.176$), 학과($r = -0.16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년($r = 0.129$), 종교($r = -0.098$), 생명윤리 교육여부($r = 0.2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락사의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종교($r = 0.139$), 생명윤리교육 여부($r = -0.15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을 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 의료인은 환자나 가족이 병원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결정을 하도록 돕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환자를 옹호하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2]. 올바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임신, 탄생, 죽음, 인락사에 관한 전통적 윤리 및 사회관습의 가치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올바른 생명의료윤리관 확

립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와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와 장기이식, 안락사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고 생명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부 지역 4년제 3개 학교의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수정에 관한 인식도는 성별은 여자가 3.24점, 학년에서는 4학년이 3.33점, 종교는 있는 경우가 3.37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학과에서는 임상병리학과가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는 종교에서는 있는 경우가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경우가 3.2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락사에 관한 인식도는 성별은 남자가 3.19점으로 높았고 학년은 2학년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3.0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학과에서는 방사선학과와 치기공학과가 3.2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윤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3.4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락사와 장기기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도는 학년에서 3학년이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3.0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5. 생명권과 인공수정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r = 0.241$), 종교($r = -0.176$), 학과($r = -0.16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년($r = 0.129$), 종교($r = -0.098$), 생명윤리 교육여부($r = 0.2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안락사의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종교($r = 0.139$), 생명윤리교육 여부($r = -0.15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결과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Jeon. (2007).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401-410.
- [2] M. O. Kim & K. S. Kim. (2015).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lf-Concepts,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Journal of Korean Medical Ethics*, 18(4), 478-490.
- [3] S. J. Kwon. (200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Keimyung university.
- [4] W. Y. Choi. (2011).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5] I. S. Kim. (2013).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4(1), 1-13.
- [6]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09).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 ethics, seoul, Koonja, 24-25.
- [7] H. Y. Jung & K. Y. Jung. (2012).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8(3), 37-48.
- [8] S. H. Lee, S. Y. Kim & J. G. Kim. (2007).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2), 145-155.
- [9] H. Y. Ahn et. al. (2008).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98-107.

- [10] H. J. Kwon. (2009). *Hospital Nurses' Attitudes concern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11] Y. J. Kim et. al. (2005). Connected Factors of Ethical Percep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5(1)*, 1-5.
- [12] Y. J. Kim & J. M. Choi. (2007). A Survey of Dental Hygiene Students' perception toward the Bio medical Ethics Probl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7(4)*, 433-439.
- [13] Y. S. Ahn, M. H. Kim & J. Y. Han. (2012). Comparison of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Health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1)*, 1-6.
- [14] G. S. Lee. (2002).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Non Health Care Professionals*. Kyunghee University, Seoul
- [15] T. S. Lee. (1990).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 249-270.
- [16] B. H. Kong. (2001).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5(1)*, 79 -88.
- [17] V. H. Kim. (2010).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civil servants at city, county, ward offices and health centers engaged in organ trans plant registration upon donation and transp lan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 [18] Y.R. Cha. (2006). *(A) Study on the Nurses' Attitude to Death in Korea, Centering on Univer sity Hospital in Jeollabuckdo Province*.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nmental WonKwang University
- [19] H. S. Park. (2002). *A study on Judicial and ethical justifications of euthanas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 T. A. Shannon & J. J. Digiacomio. (1988). *What is life ethics?* Seoul, Seogwangsa
- [21] S. L. Lowe. (1997).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is not a right to be killed. *J Med ethics, 23(3)*, 154-158.

박 영 남(Young-Nam Park)

[정회원]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2008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석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학, 구강보건학
- E-Mail : ivy9797@empal.com